

#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in Middle School and PITR Responses

서남중학교

교 사 정 의 숙\*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조 교 수 김 갑 숙\*\*

Seonam junior high school

Teacher : Jeong, Eui-Sook

De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Studies Yeungnam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Gab-Sook

---

### <Abstract>

This study checks if the PITR (Person in the Rain) test can diagnose the stress caused by school-work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that the PITR responses correlates with the degree of stress. The subjects in the study are 483 middle school third-graders from 8 middle schools in Daegu city. Research tools used are an Academic Stress Scale and a PITR test. For data analysis is adopted with t-test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ss of middle students scores 2.47/4 that means that the school stress is average, and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in scores. Second, PITR test shows that boys draw more rain than girls, straight rain with stronger wind, hide face more, no good facial expressions more often than girls. Girls on the contrary show more stable lines, bigger puddles, place protections more appropriately. Third, those with higher academic stress use more unstable strokes, less number of or insufficient direct protections than those with less academic stress, and draw indirect protection such as umbrellas before rain or clouds. The study concludes that a PITR test can be useful in diagnosing the academic str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

▲주요어(Key Words) :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빗속의 사람그림검사(PITR: person in the rain tes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과학과 정보화 시대에서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변화와 도덕적인 혼란,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 등으로 정신적인 불안과 정서적 압박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로 어느 연령층에나 존재 하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청소년기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스트레스요인에 의해 심리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

\* 주 저 자 : 정 의 숙(E-mail : jes55k@hanmail.net)

\*\* 교신저자 : 김 갑 숙(E-mail : pinakim@ynu.ac.kr)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현실은 입시교육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중앙일보, 2007. 1. 31)결과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원인으로 첫째가 학업성적(35.1%)이고, 둘째가 진학 진로문제(14.5%)로 나타나 조사된 학생들의 49.6%가 학업과 관련된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학업으로부터, 교사나 학교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문제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한 이유미(1995)를 비롯하여 박중기(1995), 남용기(2001), 김봉진(2002), 변옥순(2005) 등의 연구에서도 학업에 대한 문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강승호·정은주, 1999; 이미경, 2006),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김순란·최외선, 2004; 오미경·천성문, 199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연구(조강래, 2007) 등 성별에 따른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미성숙한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양은 아주 심각하며 학업스트레스와 함께 존재하는 학업불안 역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요구된다.

인간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상담 장면에서 개인의 의식을 전달하는 표현수단으로 우리는 언어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그 언어가 때로는 내면의 느낌을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내면의 무의식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척도가 문자언어에 의한 척도이므로 질문지의 여러 문항들은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적 심리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사검사를 사용한다. 투사검사 중 그림검사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내재화된 경험을 투사하므로 평소에는 의식화되지 않았던 심리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Machover(1949)는 투사기법은 직접적이고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표현에 대한 무의식적 요소를 발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Brooke, 2004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에서 환경적 스트레스와 대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미술치료의 투사검사법 중의 하나인 '빛속의 사람' 그림 검사(PITR)가 적용되고 있다. 투사기법으로서의 PITR은 내담자가 의식을 우회시키거나 무의식적인 방어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가치가 있으며(Leifer et al., 1991), 빛속에서 있는 사람을 그리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과 스트레스의 대처자원 등의 정보를 추정해 낼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 외국의 선행연구(Lack, 1996)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사검사법은 주로 외국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회문화적 여건이 달라 우리의 정서에 맞는 객관화 된 해석 기준이 부족하며,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도 성인들 대상으로 하여 연구된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빛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진단도구로서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만을 언급한 연구(김순란·최외선, 2004), 스트레스와 그 대처행동을 다룬 연구(손무경, 2004),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우울을 함께 측정한 연구(2006, 정아람), 우울을 측정한 연구(김희선, 2006)가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란·최외선, 2004; 손무경, 2004; 이미경, 2006; 정아람, 2006)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선, 2006)가 있을 뿐이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학업스트레스와 '빛속의 사람' 그림반응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Roback(1966)은 인물화 검사 연구에서 성과 연령이 고려될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영숙, 1994, 재인용). 그러나 현재 투사검사의 경우 성별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그림분석 기준에도 성별에 따른 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연구가 되고 있는 인물화, 빛속의 사람 그림 검사 등 투사검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수현, 김갑숙, 2007; 김순란·최외선, 2004; 김희선, 2006; 이미경, 2006) 성별에 따른 해석규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빛속의 사람그림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연구가 없으나 빛속의 사람그림은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학업스트레스 또한 수준에 따라 빛속의 사람 그림검사 반응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빛속의 사람' 그림

에 나타난 반응 특성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 반응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미술치료의 임상장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가 학업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진단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의 반응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의 반응특성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구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남학생은 266명(55.0%), 여학생은 217명(45.0%)이었다. 학업성적은 상 101명(20.9%), 중 261명(54%), 하 121명(25.1%)이었으며, 성적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학생은 144명(29.8%), 불만족은 339명(70.2%)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수성구와 동구의 4개 학교, 서구와 남구의 4개 학교를 선정하여 한 학교에 2학년씩 총 화군집 표집으로 총 540부를 배부하여 540부가 회수되었다. 실시방법은 연구자가 학교의 담당선생님에게 실시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수업시간을 통하여 질문지검사와 그림검사를 학급단위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그림과 질문지 중 하나가 빠졌거나 인물상을 만화나 막대모양으로 그린 그림을 제외하고 총 483부(남 266명, 여 217명)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사항, 학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와 투사검사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 1) 학업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김수주(2003)가 구성한 '학교 스트레스 척도' 22문항

중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8문항과 최해림의 '대학생활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를 심영훈(1998)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업에 관한 14문항을 선정하여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예,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 쓰인다), 본 연구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문항형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말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47$ 로 나타났다.

#### 2)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는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자원을 알아보는 것으로 Lack(1996)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 사용된 도구로는 도화지(A4) 1장, 연필, 지우개 등이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만화나 막대기 모양의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하고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그림을 그린 순서와 그림속의 인물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달라는 지시를 한다. 검사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림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빗속의 사람그림 척도의 구성은 Lack(1996)의 PITR-SRC 척도를 손무경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이미경(2006)이 구성한 PITR의 채점기준을 참고로 하여 스트레스 영역과 대처자원 영역으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 및 채점기준은 <표 1>과 같다.



빗속의 사람 그림 예

<표 1> 채점기준표

영역	내용	채점기준		
스트레스 영역	비의 양	없거나 적다	보통	많다
	비의 세기	약하다	보통	강하다
	비의 모양	점	원	직선
	바람의 세기	없다	약하다	강하다
	비와 사람의 접촉	접촉없다	조금 접촉함	많이 접촉함
	비와 구름의 접촉	접촉없다	조금 접촉함	많이 접촉함
	웅덩이와 사람의 접촉	거리가 멀다	거리가 가깝다	직접 접촉함
	흰 구름 유무		( )개(갯수로 기록)	
	먹구름 유무		( )개	
	웅덩이 유무		( )개	
웅덩이 면적		( )cm (가로 cm 로 기록)		
스트로크	불안정	부분안정	불안정	
스트레스 대처자원	직접보호물의 유무		( )개	
	간접보호물의 유무		( )개	
	전체 보호물의 수		( )개	
	직접보호물의 적절성	없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간접보호물의 적절성	없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얼굴모습	모두 가려짐	부분만 보임	전체가 보임
	얼굴표정	기분이 좋지 않음	그저그렇다	기분이 좋다
	인물의 크기	작다(용지의 1/4이하)	보통	크다(용지의 2/3이상)
	전체인물 모습	상반신까지 표현	하반신까지 표현	전체 표현
	그림을 그린 순서	사람 먼저 그림	비, 구름 먼저	우산, 보호물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빗속의 사람그림 검사의 채점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담관련 연수와 미술치료관련 연수를 500시간 이상 이수한 본 연구자와 현재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명이 함께 분석하였으며 채점자 간의 일치도는  $r = .73 \sim 1.0$ 의 범위에 있다. Lack(1996)의 연구에서는 세 사람의 채점자간의 일치도는 .74~.89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2.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척도구성을 위해 문항분석과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그림검사의 채점자 간의 일치도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pm$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합한 값보다 높은 점수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보다 낮은 점수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표 2>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t* 검증

구분	남		여		t 값
	M	SD	M	SD	
학업스트레스	2.47	0.40	2.49	0.42	-.01756

중간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따라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남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2.47이고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2.49로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특성의 차이

<표 3>에 의하면 비의 양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비의 양이 많다가 54.9%로, 여학생은 비의 양이 많다가 39.8%로

<표 3>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의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교차분석 결과

N=483

변인	구분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통계량
비의 양	없거나 적다	58(22.0)	63(29.2)	121(25.2)	$\chi^2=10.866^{**}$ df=2
	보통이다	61(23.1)	67(31.0)	128(26.7)	
	많다	145(54.9)	86(39.8)	231(48.1)	
비의 세기	약하다	92(35.5)	72(33.8)	164(34.7)	$\chi^2=1.855$ df=2
	보통이다	108(41.7)	101(47.4)	209(44.3)	
	강하다	59(22.8)	40(18.8)	99(21.0)	
비의 모양	점	4( 1.5)	1( 0.5)	5( 1.1)	$\chi^2=8.620^*$ df=2
	원	11( 4.2)	23(10.8)	34( 7.2)	
	직선	244(94.2)	189(88.7)	433(91.7)	
바람의 세기	없다	165(62.5)	157(73.0)	322(67.2)	$\chi^2=6.450^*$ df=2
	약하다	68(25.8)	43(20.0)	111(23.2)	
	강하다	31(11.7)	15( 7.0)	46( 9.6)	
비와 사람의 접촉	접촉이 없다	111(42.0)	96(44.4)	207(43.1)	$\chi^2=.598$ df=1
	접촉이 있다	153(58.0)	120(55.6)	273(56.9)	
비와 구름의 접촉	접촉이 없다	14(45.2)	12(48.0)	26(46.5)	$\chi^2=2.765$ df=1
	접촉이 있다	17(54.8)	13(52.0)	30(53.5)	
웅덩이와 사람의 접촉	접촉이 없다	237(89.8)	165(76.4)	402(83.8)	$\chi^2=15.637^{***}$ df=1
	접촉이 있다	27(10.2)	51(23.6)	78(16.3)	
스트로크	불안정	62(23.5)	15( 7.0)	77(16.1)	$\chi^2=31.878^{***}$ df=2
	부분 안정	146(55.3)	118(54.9)	264(55.1)	
	전체 안정	56(21.2)	82(38.1)	138(28.8)	
흰구름 유무	없다	241(91.3)	196(90.7)	437(91.0)	$\chi^2=.044$ df=1
	있다	23( 8.7)	20( 9.3)	43( 9.0)	
먹구름 유무	없다	259(98.1)	211(97.7)	470(97.9)	$\chi^2=.103$ df=1
	있다	5( 1.9)	5( 2.3)	10( 2.1)	
웅덩이 유무	없다	232(88.9)	165(76.4)	397(83.2)	$\chi^2=14.788^{***}$ df=21
	있다	29(11.1)	51(23.6)	80(16.8)	
웅덩이 면적	5mm 이하	246(94.3)	178(82.4)	424(88.9)	$\chi^2=19.049^{***}$ df=1
	5mm 이상	15( 5.7)	38(17.6)	53(11.1)	

\* $p<.05$ , \*\* $p<.01$ , \*\*\* $p<.001$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0.866, p<.01$ ).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를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 모양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직선모양이 94.2%, 원 모양이 4.2%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직선모양이 88.7%, 원 모양이 10.8%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8.620, p<.05$ ).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선모양의 비를 좀 더 많이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원모양의 비를 좀 더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의 세기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바람이 강하다가 11.7%, 바람이 없다가 62.5%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바람이 강하다가 7.0%, 바람이 없다가 73.0%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6.450, p<.01$ ).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바람을 더 많이 그리고 세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웅덩이와 사람의 접촉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접촉이 있다가 10.2%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접촉이 있다가 23.6%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5.637, p<.0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웅덩이와 사람을 접촉하여 그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로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정된 선으로 그린 경우가 21.2%, 여학생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선으로 그린 경우가 38.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31.878, p<.0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으로 선의 질감을 안정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자원 영역의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교차분석 결과

N=483

변 인	구 분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통계량
직접보호물 유무	없 다	119(35.1)	67(31.0)	186(38.8)	$\chi^2=9.891^{**}$ df=1
	있 다	145(54.9)	149(69.0)	294(61.2)	
간접보호물 유무	없 다	174(65.9)	154(71.3)	328(68.3)	$\chi^2=1.593$ df=1
	있 다	90(34.1)	62(28.7)	152(31.7)	
전체보호물 수	없 다	76(28.8)	40(18.5)	116(24.2)	$\chi^2=7.382^{**}$ df=2
	1개	141(53.4)	126(58.3)	267(55.6)	
	2개 이상	47(17.8)	50(23.1)	97(20.2)	
직접보호물의 적절성	없 다	119(45.2)	67(32.1)	186(39.3)	$\chi^2=9.457^{**}$ df=2
	부족하다	69(26.2)	62(28.8)	131(27.4)	
	충분하다	75(28.5)	84(39.1)	159(33.3)	
간접보호물의 적절성	없 다	174(66.9)	154(73.0)	328(69.6)	$\chi^2=2.027$ df=2
	부족하다	57(21.9)	38(18.0)	95(20.2)	
	충분하다	29(11.2)	19( 9.0)	48(10.2)	
얼굴모습	모두 가려짐	37(14.1)	15( 7.0)	52(10.9)	$\chi^2=14.203^{***}$ df=2
	부분만 보임	55(20.9)	27(12.6)	82(17.2)	
	전체가 보임	171(65.0)	173(80.5)	344(72.0)	
얼굴표정	비우호적	77(33.9)	42(20.8)	119(27.7)	$\chi^2=29.987^{***}$ df=2
	무표정	128(56.4)	100(49.5)	228(53.1)	
	우호적	22( 9.7)	60(29.7)	82(19.1)	
인물 크기	작 다	78(29.5)	47(21.8)	125(26.0)	$\chi^2=4.944$ df=2
	보통이다	159(60.2)	151(69.9)	310(64.6)	
	크 다	27(10.2)	18( 8.3)	45 (9.4)	
전체인물모습	상반신까지	9( 3.4)	1( 0.5)	10( 2.1)	$\chi^2=5.589$ df=2
	하반신까지	19( 7.2)	20( 9.3)	39( 8.1)	
	전체가 있다	135(89.4)	195(90.3)	430(89.8)	
그린순서	사람 먼저 그림	192(73.0)	139(64.7)	331(69.2)	$\chi^2=4.454$ df=2
	비, 구름 먼저 그림	32(12.2)	39(18.1)	71(14.9)	
	우산, 보호물 먼저 그림	39(14.8)	37(17.2)	76(15.9)	

\* $p<.05$ , \*\* $p<.01$ , \*\*\* $p<.001$ 

웅덩이 유무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웅덩이를 그린 경우가 11.1%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웅덩이를 그린 학생이 23.6%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4.788$ ,  $p<.0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웅덩이를 그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웅덩이의 면적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면적이 5mm이상의 웅덩이를 그린 학생이 5.7%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17.6%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9.049$ ,  $p<.0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웅덩이를 좀 더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직접보호물의 유무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직접보호물을 그린 경우가 54.9%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직접보호물을 그린 경우가 69.0%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9.891$ ,  $p<.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접보호물을 그리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호물의 수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호물을 그린 경우가 17.8%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23.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hi^2=7.382$ ,  $p<.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호물을 더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보호물의 적절성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직접보호물을 충분히 적절하게 그린 경우가 28.5%, 여학생의 경우 직접보호물을 충분히 적절하게 그린 경우가 39.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9.457$ ,  $p<.01$ ).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산, 우비 등의 직접보호물을 좀 더 적절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모습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전체가 보이게 그린 경우가 65.0%, 여학생은 전체가 보이게 그린 경우가 80.5%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4.203$ ,  $p<.01$ ).

<표 5>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의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교차분석 결과

변 인	구 분	낮은 집단(n=73) N(%)	높은 집단(n=63) N(%)	전체(n=136) N(%)	통계량
비의 양	없거나 적다	15(20.5)	20(31.7)	35(25.7)	$\chi^2=2.827$ df=2
	보통이다	16(21.9)	15(23.8)	31(22.8)	
	많다	42(57.5)	28(44.4)	70(51.5)	
비의 세기	약하다	25(34.2)	24(38.7)	49(36.3)	$\chi^2= .290$ df=2
	보통이다	33(45.2)	26(41.9)	59(43.7)	
	강하다	15(20.5)	12(19.4)	27(20.0)	
비의 모양	원	7( 9.6)	5( 8.1)	12( 8.9)	$\chi^2= .096$ df=1
	직 선	66(90.4)	57(91.9)	123(91.1)	
바람의 세기	없 다	55(76.4)	45(71.4)	100(74.1)	$\chi^2=1.239$ df=2
	약하다	12(16.7)	15(23.8)	27(20.0)	
	강하다	5( 6.9)	3( 4.8)	8( 5.9)	
비와 사람의 접촉	접촉이 없다	33(45.2)	22(34.9)	55(40.4)	$\chi^2=1.485$ df=1
	접촉이 있다	40(54.8)	41(65.1)	81(59.6)	
비와 구름의 접촉	접촉이 없다	5( 6.9)	3( 4.8)	8( 5.9)	$\chi^2= .287$ df=1
	접촉이 있다	67(93.1)	60(95.2)	127(94.1)	
웅덩이와 사람의 접촉	접촉이 없다	62(84.9)	56(88.9)	118(86.8)	$\chi^2= .461$ df=1
	접촉이 있다	11(15.1)	7(11.1)	18(13.2)	
스트로크	불안정	6( 8.2)	15(23.8)	21(15.4)	$\chi^2=8.863^*$ df=2
	부분 안정	50(68.5)	29(46.0)	79(58.1)	
	전체 안정	17(23.3)	19(30.2)	36(26.5)	
흰구름 유무	없 다	68(93.2)	57(90.5)	125(91.9)	$\chi^2= .325$ df=1
	있 다	5( 6.8)	6( 9.5)	11( 8.1)	
먹구름 유무	없다	73(100.)	60(95.2)	133(97.8)	$\chi^2=3.555$ df=1
	있다	0( 0.0)	3( 4.8)	2( 2.2)	
웅덩이 유무	없 다	60(82.2)	58(92.1)	118(86.0)	$\chi^2=2.914$ df=1
	있 다	13(17.8)	5( 8.0)	18(13.3)	
웅덩이 면적	5mm 이하	68(93.2)	62(98.4)	130(95.6)	$\chi^2=2.234$ df=1
	5mm 이상	5( 6.8)	1( 1.6)	6( 4.4)	

\*p<.05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얼굴모습을 가려지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우호적인 얼굴표정을 그린 경우가 9.7%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우호적인 얼굴표정을 그린 경우가 29.7%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29.987, p<.0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얼굴 표정을 좀 더 우호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 특성의 차이

학업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을 채택하여 두 집단 간의 빗속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5>에 의하면 스트로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스트로크가 전체적으로 안정하게 나타난 경우가 23.3%,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30.2%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8.863, p<.05$ ).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선의 질감이 불안정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직접 보호물의 유무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직접 보호물을 그리지 않은 경우가 30.1%인 반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직접 보호물을 그리지 않은 경우가 55.6%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8.974, p<.01$ ). 즉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비해서 직접 보호물을 그리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6&gt;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자원 영역의 빛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교차분석 결과

변 인	구 분	낮은 집단(n=73) N(%)	높은 집단(n=63) N(%)	전체(n=136) N(%)	통계량
직접보호물 유무	없 다	22(30.1)	35(55.6)	57(41.9)	$\chi^2=8.974^{**}$ df=1
	있 다	51(69.9)	28(44.4)	79(58.1)	
간접보호물 유무	없 다	49(67.1)	42(66.7)	91(66.9)	$\chi^2=.003$ df=1
	있 다	24(32.9)	21(33.3)	45(33.1)	
전체보호물 수	없 다	11(15.1)	25(39.7)	36(26.5)	$\chi^2=11.821^{**}$ df=2
	1개	46(63.0)	24(38.1)	70(51.5)	
	2개 이상	16(21.9)	14(22.2)	30(22.1)	
직접보호물의 적절성	없 다	23(31.5)	34(54.8)	57(42.2)	$\chi^2=7.863^*$ df=2
	부족하다	23(31.5)	15(24.2)	38(28.1)	
	충분하다	27(37.0)	13(21.0)	40(29.6)	
간접보호물의 적절성	없 다	48(66.7)	44(69.8)	92(68.1)	$\chi^2=.664$ df=2
	부족하다	14(19.4)	9(14.3)	23(17.0)	
	충분하다	10(13.9)	10(15.9)	20(14.8)	
얼굴모습	모두 가려짐	7( 9.7)	7(11.1)	14(10.4)	$\chi^2=2.330$ df=2
	부분만 보임	15(20.8)	7(11.1)	22(16.3)	
	전체가 보임	50(69.4)	49(77.8)	99(73.3)	
얼굴표정	비우호적	17(25.8)	21(37.5)	38(31.1)	$\chi^2=3.964$ df=2
	무표정	29(43.9)	26(46.4)	55(45.1)	
	우호적	20(30.3)	9(16.1)	29(23.8)	
인물 크기	작 다	15(20.8)	18(28.6)	33(24.3)	$\chi^2=1.287$ df=2
	보통이다	55(75.3)	42(66.7)	97(71.3)	
	크 다	3( 4.1)	3( 4.8)	6( 4.4)	
전체인물모습	하반신까지	6( 8.2)	4( 6.3)	10(7.4)	$\chi^2=.174$ df=1
	전체가 있다	67(91.8)	59(93.7)	126(92.6)	
그림순서	사람 먼저 그림	48(65.8)	45(72.6)	93(68.7)	$\chi^2=6.000^*$ df=2
	비, 구름 먼저 그림	10(13.7)	13(21.0)	23(17.0)	
	우산, 보호물 먼저 그림	15(20.5)	4( 6.5)	19(14.1)	

\*p&lt;.05, \*\*p&lt;.01

전체 보호물의 수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보호물을 1개 그린 경우가 63.0%, 그리지 않은 경우가 15.1%로 나타난 반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1개의 보호물을 그린 경우가 38.1%, 그리지 않은 경우가 39.7%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1.821, p<.01$ ). 즉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비해 보호물을 그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보호물의 적절성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직접보호물을 충분히 적절하게 그린 경우가 37%였으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직접보호물을 충분히 적절하게 그린 경우가 21%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7.863, p<.05$ ). 즉,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비해서 직접보호물을 충분히 적절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그린 순서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 모두 사람을 먼저 그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우산이나 직접, 간접보호물을 먼저 그리는 비율이 20.5%로, 비나 구름을 먼저 그리는 비율 13.7%보다 높았으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비나 구름을 먼저 그리는 비율이 21.0%로 우산이나 직접 간접 보호물을 먼저 그리는 비율 6.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6.000, p<.05$ ).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비나 구름을 먼저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비나 구름 보다는 우산 등의 직접 간접 보호물을 먼저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진단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그림검사 중의 하나인 빛속의 사람그림(PITR) 검사



가 학업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483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로는 환경변인 질문지와 학업스트레스 질문지, 학업불안 질문지, 빗속의 사람그림(PITR)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t-test*,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중학생들의 전체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2.48/4(62/10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미경(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스트레스 점수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순란, 최외선(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관련 스트레스 점수 보다는 높았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정자(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문제 영역의 스트레스 점수, 이화진(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중학교 3학년의 학업스트레스 점수와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학교 1학년 보다는 3학년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시기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와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진로 진학 등의 문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더욱 많은 양의 학업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남학생(M=2.47)보다는 여학생(M=2.49)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고 한 이미경(2006)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으나 김순란(200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대상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곧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형성된 중압감에 의해 학업스트레스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빗속의 사람그림(PITR)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의 양을 많이 그리고, 직선모양의 비를 주로 그리며, 바람을 강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웅덩이와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그리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웅덩이를 잘 그리지 않으며, 웅덩이를 그리더라도 크기를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자원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

체적으로 보호물을 적게 그리고, 직접보호물을 적절하게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얼굴모습을 가려지게 그리고, 비우호적인 얼굴표정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의 양을 많이 그리고, 직선 모양의 비를 많이 그리며, 웅덩이를 그리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접보호물을 더 많이 표현하였고, 얼굴 전체모습을 그리며, 얼굴표정을 밝게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 이미경(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웅덩이와 사람과의 거리를 더 멀게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를 강하고 사선방향으로 그리며 웅덩이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 김순란과 최외선(2004)의 연구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남학생이 비를 세게 그리고 비의 방향을 사선으로 나타낸 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공격성, 과잉활동성 같은 외현적이고 적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남학생이 움직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나타내고 그림이 더 역동적이라고 한 김수현과 김갑숙(2006)의 결과와 연결시켜볼 수 있겠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스트로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짧게 여러 번에 걸쳐 그려 거칠게 표현하였다는 권난희(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짧고 거친 선은 흥분하기 쉽고 충동적인 경우에 잘 나타난다고 한 최외선과 정현희(2004)와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외향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얼굴모습을 가려지게 그리고 직접보호물과 간접보호물을 더 적게 그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얼굴을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보호물을 불충분하게 그리는 경향이 높다는 김희선(200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우산을 그리지 않고 우산이외의 간접보호물도 그리지 않은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책임감, 성실성, 참을성이 있다고 본 김수현과 김갑숙(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한편, 요즘 학생들이 우산이외의 장화, 우비 등의 직접보호물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반응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스트로크에서, 스트레스 대처자원 영역에서는 직접보호물의 유무, 전체보호물의 수, 직접보호물의 적절성, 그림을 그린 순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보호물 수와 직접보호물을 적게 그리고 직접보호물을 충분하지 않게 그리는 경향이 있으며

비나 구름보다 우산 등의 직접, 간접 보호물을 먼저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반응과 빗속의 사람 그림반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미경(200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우산보다 구름을 먼저 그린 아동이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김순란과 최외선(2004)의 연구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불안정한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로크가 불균형하다는 김희선(2006), 권난희(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스트로크는 선의 질감을 말하며 일정하지 않은 압력의 선은 히스테리,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쉽게 불만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운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자기 확신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을 나타내며 연한 선으로 나타낸 불연속인 선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을 나타내고 짧고 연속되지 못한 선은 충동적이고 흥분하기 쉬운 경향성을 나타낸다(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2002)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직접보호물을 적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산의 면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결과와 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그림 요인은 보호물의 개수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정아람(2006)의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우산이나 보호물보다 비와 구름을 먼저 그리는 경향이 많다는 결과는 우산보다 구름을 먼저 그린 아동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김순란과 최외선(2004)의 연구와 같은 의견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호물을 많이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보호물과 같은 대처자원을 많이 가질 때 학업스트레스의 양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대응하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중학교 시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 시기에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스트레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적응하기 위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자원과 대처양식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학교교육은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며 학습능력의 차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길러 주어 학업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이나 심리치료 등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제가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

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해소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대한심신스트레스 학회, 1997). 자기조절을 잘하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지각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권혁호(2003)의 연구가 이를 지지해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빗속의 사람그림(PITR) 검사가 중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집대상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8개 중학교의 3학년 학생들로 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의 관계를 진단하고자 실시하였으나 투사검사와 관련된 학업스트레스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빗속의 사람그림 검사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양식을 진단할 수 있는 투사검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울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만을 분석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우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로서 스트레스와 불안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관계도 규명해 본다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승호·정은주(199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05-424.
- 권난희(2006). *중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와 학교생활화 반응 특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호(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갑숙·전영숙(2005). 여고생의 신경증과 동적가족화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12(4), 1-17.
- 김동연·공마리아·최외선(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동아문화사.
- 김봉진(2002).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행위 실천정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주(2001). *중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현·김갑숙(2006). 성별에 따른 중학생 16PF 성격특성과  
 인물화 성격 요인과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14(3), 509-532.  
 김순란·최외선(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빗속의 아이'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11(2), 185-210.  
 김희선(2006). 청소년의 우울과 빗속의 사람그림 상관관계. 영남  
 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용기(2001). 중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1997). *스트레스 과학의 이해*. 서울: 신광  
 출판사.  
 박영숙(1994).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박중기(1998). 중학생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옥순(2005).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양식에  
 관한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무경(2004). PSTR을 통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측정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정자(2006). 중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생활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영훈(1998). 중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미향·천성문(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15집,  
 63-96.  
 이미경(2006).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빗속의 아이' 그림 반응특성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미(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진(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유형  
 및 학교 적응도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아람(2006).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빗속의 사람 그림의 반응특성 연구. 대구  
 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태식(2005). 학습전략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업불안과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중앙일보(2007) 1월 31일.  
 조강래(2007). 고 3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원에 따른 학업스트  
 레스 증상과 대처방식.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외선·정현희(2004). *동적기죽화와 심리진단*. 대구: 중문출판사.  
 최진승(1987). 중학생의 불안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분석과 시

험의 인지적 방해 감소방안.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13. 9-40.  
 최진승(1988) *일반불안, 시험불안, 학업불안, 수험불안과 수학  
 성적과의 공점 및 인과관계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  
 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17(1). 173-188.  
 Brooke, S.(2004). *Tools of the trade- A therapist's guide to  
 art therapy assessments*. Charles C Thomas, Publi-  
 sher.  
 Lack, H, S,(1996). *The Person-In-The-Rain projective dra-  
 wing as a measure of children's coping capacity: A con-  
 current validity study using Rorschach, psychiatric, and  
 life history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  
 tion The California School of Psychology Alameda.  
 Leifer, M., Shapiro, J. P., Martone, M. W., & Kassem, L.  
 (1991). Rorschach assessment of psychological func-  
 tioning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Persona-  
 lity Assessment*, 56(1), 14-28.  
 Machover, K.(1948).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접수일 : 2008년 01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4월 07일